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세 리¹⁾ 이 수 현²⁾ 구 예 진³⁾ 이 장 이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학부모 학교참여(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1,500명으로 이 중 어머니 응답이 89.2%였다. SPSS 20.0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에 대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AMOS 20.0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은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기부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부모의 교육기부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효능감은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했다. 이는 부모-학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부모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결과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이 자녀의 발달과 부모 자신의 역할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학부모-학교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학부모 학교참여, 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 부모효능감, 학교생활적응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통합과정 (E-mail: gomshawn2@naver.com)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I. 서 론

학교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생활의 중심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성을 확립하고, 이후 성인기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Simons-Morton, Crump, Haynie, & Saylor, 1999). 특히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이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염정원, 조한익, 2016). 학교생활적응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김영숙, 조한익, 2015;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염정원, 조한익, 2016),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누적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심을 갖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애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고 보고된다(신윤자, 2005; 조은정, 2012; 하명선, 이순복, 2009;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에서 재인용). 또한,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이고 아동의 생활을 감독할 때 학교생활적응이 높다(이경남, 2008;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이처럼 학교와 독립된 영역으로서 가족 체계 안의 부모 관련 요인은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학교와 상호작용하는 부모, 즉 학부모 요인이 아동의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보고된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이들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영향뿐 아니라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역시 중요하며, 이는 중간체계(mesosystem)라 불린다(Bronfenbrenner, 2005). 아동의 학교생활과 가정 생활은 아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미시체계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참여와 가정에서의 학업 지원은 이러한 두 미시체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중간체계라고 볼 수 있다. 중간체계로서 학부모 학교참여 및 가정 내 학업 지원은 선행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Gershoff & Aber, 2006).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제반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2) 그 유형은 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 학부모 교육으로 구분된다. 이 때 학부모교육은 '자녀 양육과 학습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의 양육기술과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 및 강연'으로(이강이 등, 2012) 학교로부터 학부모에게 일방향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교육기부는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학부모-학교 소통은 '학교교육, 학교운영, 자녀의 학교생활 등 다양한 정보 및 요구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이강이 등, 2012) 보다 자발적인 학부모의 참여와 학부모-학교 양방

향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이에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학부모-학교 중간체계를 주 관심사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간 양방향적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교육 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였다. 부모와의 대화, 학부모-교사 협의회 참여,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구체화되는 부모의 학교 관여는 고등학생 자녀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일관된 효과를 보인다(김두환, 김지혜, 2011).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교참여는 청소년 자신의 학교참여를 예측하며, 이들의 학교에서의 수행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Connell, Spencer, & Aber, 1994). 초등학교에서 부모의 학교참여는 아동의 적응 중 특히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부모의 학교운영회의 참여, 봉사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읽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선아, 2011).

한편, 학부모 학교참여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감안하면(Bronstein et al., 1996; Chen, Chang, He, & Liu, 2005; Pettit, Bates, & Dodge, 1997)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부모 학교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

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Parental efficacy)간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하였다(이진화, 임원신, 김경은, 2010; Grolnick, Benjet, Kurowski, & Apostoleris 1997; Pelletier & Brent, 2002; Sheldon, 2002; Shumow & Lomax, 2002; Waanders, Mendez, & Downer, 2007). 부모효능감은 양육의 인지적 측면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0). 효능감의 원천은 과거 유사한 영역에서의 성취경험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에(Hohman, 2014), 부모효능감은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경험, 또는 관찰을 통한 간접적인 부모역할 경험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 역시 다수인데,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높은 양육효능감을 나타낸다(Cheung, Lam, & Ngai, 2008). 결혼이민자의 어머니의 학교참여 경험은 성공적 양육 경험을 축적시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였으며(장덕희, 장재원, 염동문, 2015),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도금혜, 2008; 이현아,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로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 경험으로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녀교육이 부모 역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에서는,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학부모로서 학교에 참여하는 경험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육 강조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학교참여 경험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직·간접적으로 예측하는 선행요인이기도 하다. 부모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정서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김경은, 2011) Jones와 Prinz는 부모효능감 관련 연구를 리뷰하면서,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에서의 수행(school performance)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Jones & Prinz, 2005). 특히 학업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부모효능감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데, 높은 부모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Ardelt & Eccles, 2001;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Bogenschneider, 1997), 부모의 관여 및 감독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oover-Dempsey et al., 2001; Shumow & Lomax, 2002). 부모효능감은 학업 성취 뿐 아니라 전반적 학교생활과도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긍정적 통제를 매개하여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품행 문제를 감소시킨다(Dumka, Gonzales, Wheeler, & Millsap, 2010). 동일한 맥락의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이지훈,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13).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및 부모 자신의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때 부모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부모효능감이 학부모 학교참여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 효과를 포함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학부모 학교참여를 탐색한 대다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참여 빈도나 참여율 등 양적 변수를 활용하였다(이현아, 2012; 이현아, 진미정, 2012; 최인숙, 이강이, 2013). 연구 결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소득 수준, 맞벌이 유무, 교육수준(이현아, 진미정, 2012; 최인숙, 이강이, 2013)와 학교만족도(최인숙, 이강이, 2013)에 따라 그 빈도와 종류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기부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주 학교에 참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변수는, 주관적으로 경험된 학부모 학교참여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동일한 빈도로 교육기부나 담임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더라도, 주관적으로 경험한 기여도나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부모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서 학부모 학교참여는 부모의 역할수행 경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의 주관적 경험으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경험한 학교참여 빈도 뿐 아니라 기여도와 만족도를 고려하여 주관적 학교참여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기부는 안전 및 생활지도, 모니터링, 취약계층 지원, 학교운영 및 행사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생 상담 등 자녀 교육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서의 모든 제반 활동을 포괄한다. 이때 교육기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부모

가 보고한 참여 빈도와 함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에의 기여도를 활용한다. 한편 학부모-학교 소통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유인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교육정보 및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포함한다. 이 때 유인물 등을 통한 교육정보 제공과 담임교사 상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시를 정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빈도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주관적 경험의 개인차를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 예컨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학기에 한 번,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거나 적게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경험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부와는 달리, 학부모-학교 소통은 소통에 대한 만족도를 토대로 학부모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다. 이 때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와 학교 간 양방향적 상호작용이자, 학부모의 주관적 역할 수행 경험이다. 이에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담보하는 학교참여 유형인 교육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을 주된 관심사로 하며, 측정에서는 학부모의 주관적인 기여도와 만족도를 반영한다. 최종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이 때, 교육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제시된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학부모 학교참여(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는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학부모 학교참여(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모효능감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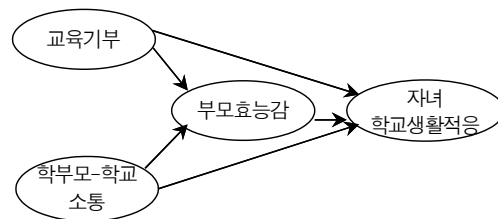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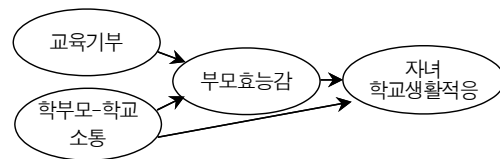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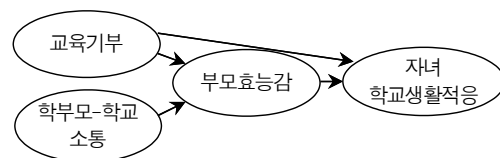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1) 교육기부 완전매개모형



2) 학부모-학교 소통 완전매개모형



3) 완전매개모형



그림 2. 경쟁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데이터의 일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 1,500명이다. 이 때 지역별, 학교급별 모집단 비례배분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1:1 구조화된 질문지로 이루어졌으며 총 7주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학교급이 초등학교 44.8%, 중학교가 27.3%, 고등학교가 27.9%이며 어머니 응답이 89.2%, 아버지 응답이 10.8%를 차지하였다. 응답한 부모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31.6%, 40대 이상이 68.4%였으며 지역규모는 대도시가 42.9%, 중소도시가 41.9%, 읍면지역이 15.2%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 자녀의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잘 지내고 있다(1점)'부터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3문항(문항 예: 자녀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으로 측정하

였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이 우수하다고 인지함을 의미한다.

교육기부

학부모의 교육기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부모의 교육기부 횟수와 주관적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학부모의 교육기부 횟수는 교내외 안전 및 생활지도, 모니터링, 학교 운영 및 행사 지원 등의 교내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의 7가지 유형에 대해 '전혀없음(1점)'부터 '한 달에 1-2회 이상(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7~26을 가진다. 교육기부 주관적 기여도는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와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질문하여 총 2개의 문항으로 '매우 많이 도움이 되었다(1점)'부터 '해당사항 없음(5점)'의 범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4~8을 가진다. 이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교육기부 학교참여를 통한 학교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학교 소통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의 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하위 요인을 구성하였다. 학교와의 소통은 크게 상담(대면, 비대면)과 학교로 제공받는 정보로 보고, 이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은 2문항(예: 학교의 선생님과 했던 면대면 상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

였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와의 소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l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척도를 수정 및 번안하였고, 이에 한국적 맥락인 부모자녀교육신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미옥(2003)의 척도 중 '심리적 지원을 통한 교육지원활동' 영역 중 '부모-자녀 동일시' 유형 문항과 한국교육종단자료 4차년도 척도 중 '부모의 사회인식 영역'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문항 예: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고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5이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AMOS 20.0을 사용하였다. 이 때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효능감의 경우 연구자가 이질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가지 유형의 부모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쟁 모형이 대두된다. 그림 2는 교육기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삭제된 '교육기부 완전매개모형', 학부모-학교 소통의 직접경로가 삭제된 '학부모-학교 소통 완전매개모형', 그리고 두 가지 직접 경로가 모두 삭제된 '완전매개모형'을 차례대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형 비교를 통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은 뒤, 해당 모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의 각각의 측정변인들 간의 다변인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됨에 따라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부모역할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육기부 횟수($r = .09, p < .001$)와 주관적 교육기부 기여도($r = .19, p < .001$)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기부와 관련된 하위 요인(교육기부횟수, 교육

표 1. 변수 간 상관관계

(N = 1,500)

	1	2	3	4	5	6	7	8
1	1							
2	.25***	1						
3	.03	.23***	1					
4	.13***	.25***	.35***	1				
5	.09***	.19***	.17***	.21***	1			
6	.15***	.20***	.14***	.21***	.24***	1		
7	.16***	.15**	.13**	.20***	.20***	.60***	1	
8	.07**	.17**	.13**	.13***	.15***	.55***	.52***	1
M	8.38	6.07	5.98	5.63	66.84	3.95	3.84	3.91
SD	2.05	0.6	0.52	0.77	7.19	0.53	0.59	0.62

주. 1= 교육기부횟수, 2= 교육기부기여도, 3= 상담만족도, 4= 교육정보만족도, 5= 부모효능감, 6= 자녀의 학교생활 7= 교사와의 관계, 8= 친구와의 관계

* $p < .05$. ** $p < .01$. *** $p < .001$.

기부기여도) 모두는 자녀의 학교생활($r = .15$, $r = .20$, $p < .001$), 교사와의 관계($r = .16$, $p < .001$, $r = .15$, $p < .01$), 또래와의 관계($r = .07$, $r = .17$, $p < .01$)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학교 소통의 하위 요인인 상담만족도($r = .17$, $p < .001$),와 교육정보만족도($r = .21$, $p < .001$)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고, 더불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r = .14$, $p < .001$, $r = .21$, $p < .001$), 교사와의

관계($r = .13$, $p < .01$, $r = .20$, $p < .001$), 또래와의 관계($r = .13$, $p < .01$, $r = .13$, $p < .001$)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검증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모두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연구모형 검증결과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	Δdf
연구모형	61.168	21	.981	.958	.036		
경쟁모형1	62.819	22	.980	.960	.035	1.651	1
경쟁모형2	72.160	22	.976	.950	.039	10.992	1
경쟁모형3	107.946	23	.959	.920	.050	46.778	2

표 4. 매개효과 검증

변인				sobel-test (Z)	
교육기부	→	부모효능감	→	학교생활적응	1.66 [*]
학부모-학교소통	→	부모효능감	→	학교생활적응	1.85 [*]

* $p < .05$.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1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부모효능감은 학부모의 교육기부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함과 동시에 학교와의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학부모의 교육기부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연구에 가장 적합함을 의미한다.

3.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직·간접효과 분석

앞서 검증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변인들 간 경로계수를 알아보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최종 채택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각각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표 3. 주요변수들의 직·간접 효과 분석

변인			S.E	C.R	표준화계수(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교육기부	→	부모효능감	0.70	2.00	0.24 [*]		0.24 [*]
학부모-학교 소통	→	부모효능감	0.73	2.28	0.23 [*]		0.23 [*]
부모 효능감	→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0.00	3.28	0.18 ^{**}		0.18 ^{**}
교육기부	→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0.05	4.84	0.41 ^{***}	0.04 ^{***}	0.45 ^{***}
학부모-학교소통	→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0.05	4.84		0.04 ^{***}	0.04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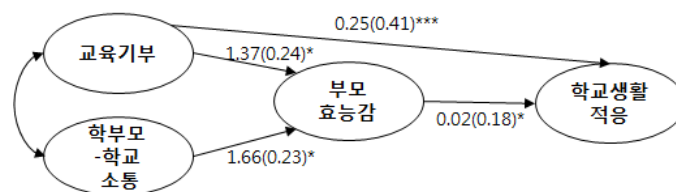


그림 3. 주요변수들의 경로계수

주. 괄호 안은 표준화경로계수

다. 그 다음 주요변수들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소통은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5$). 또한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8, p < .01$). 부모효능감은 학부모의 교육기부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beta = .04, p < .05$), 학교와의 소통에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 p < .001$).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s $z = 1.66^*, 1.8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중간체계로서 부모-학교 간 상호작용 중 학부모의 학교참여(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효능감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 보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은,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스스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참여와 높은 부모효능감 간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결과(Grolnick et al., 1997)와 일치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부모 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의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즉, 자녀의 교육 지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부모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의 소통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는 바,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녀의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기부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부모의 교육기부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김두환, 김지혜,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존 연구에서 학교에 대한 부모의 관여(involverment)는 학교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의 학업 수행을 가정에서 지도하는 것을 포함하였으나(Gershoff & Aber, 2006),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부가 가정에서의 학업 관여를 제외하고 교내외 안전 및 생활지도, 모니터링, 교내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학교 내 직·간접적 학교참여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관련 활동 외에 다양한 유형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효능감은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이는 부모-학교 간의 원

활한 상호작용이 부모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효능감 및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두환, 김지혜, 2011; Jackson, Choi & Bentler, 2009; Shumow & Lomax, 2002)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가 학교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인적, 물적 요소를 포함한 관계적 자원을 통해 양육을 지원받고 이는 곧 성공적인 양육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모효능감 또한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자본 측면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대입해본 당초 연구가설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부모 자신의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까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학부모의 교육기부와 학부모-학교 간 소통을 함양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청(2014)의 부모의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조사에 따르면 학교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는 부모의 비율이 취업 여부에 따라 현격히 다르게 나타났다. 비취업부모(10.0%)는 취업부모(3.5%)에 비해 학교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는 비율이 3배 가량 높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취업부모 내에서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학교참여 경험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이현아, 진미정, 201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취업부모의 학교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학업 관리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빈도와 기여도만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함으로써 학부모의 직접적인 학교 참여의 영향력을 포착하였다. 학부모의 학교현장에 대한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요인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관계에 집중하여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모자원의 영향을 연구하였다(강유진, 문재우, 2005; 이정은, 조미형,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라는 미시체계를 벗어나 중간체계로서 부모-학교 관계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한 것으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소통, 부모 효능감,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역방향 또는 양방향의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학교급 간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부모의 심리적 변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간 차이를 밝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검증된 바,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급을 세분하여 학부모-자녀-학교 간 상호작용 및 역동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학교와 학부모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소통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형에는 학부모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학교참여 유형에 따른 부모효능감 및 자녀의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이 자녀의 발달과 부모 자신의 역할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학부모-학교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 배경요인과 가족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학연구*, 16(1), 283-316.
- 김경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영숙, 조한익 (2015).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인과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29(4), 845-871.
- 도금혜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의사소통 유형 및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139-155.
-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휴대전화의 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4), 167-188.
-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염정원, 조한익 (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 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2). 학교급별, 지역별, 학부모 특성별 학부모 학교참여 실태조사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경남 (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 부모의 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4), 91-110.
-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 이지훈,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13).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13-25.
- 이진화, 임원신, 김경은 (2010). 저소득층 부모가 지각한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의 질이 가정 중심 유아교육의 부모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761-774.
- 이현아 (2012). 아버지 학교참여 사례 연구. 2014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51-251.
- 이현아, 진미정 (2012). 취업 부모의 학교참여 경험 및 학교참여휴가제에 대한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0(6), 119-130.
- 임선아 (2011).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참여 효과: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 검증. *아동교육*, 20(4), 221-233.
- 장덕희, 장재원, 염동문 (2015).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문화적응과 사회자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0(4), 631-649.
- 조은정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5(1), 35-50.
- 최인숙, 이강이 (2013). 학부모 교육기부 예측요인 탐색.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25-237.
- 통계청 (2014). 2014년 사회조사 결과.
- 하명선, 이순복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8년 학부모 코드북.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1206-1222.
- Bogenschneider, K. (1997). Parental involvement in adolescent schooling: A proximal process with transcontextual valid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18-733.
- Bronfenbrenner, U. (2005). *Making human beings human: Bioecological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Sage.
-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 . . Cha, S. Y. O.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15-426.
- Chen, X., Chang, L., He, Y., & Liu, H. (2005).

- The peer group as a context: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6(2), 417-434.
- Cheung, C. K., Lam, C. M., & Ngai, S. S. Y. (2008). Help from the parent - teacher association to parenting efficacy: Beyond social status and informal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3), 1134-1152.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 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 Connell, J. P., Spencer, M. B., & Aber, J. L. (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 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2), 493-506.
- Dumka, L. E., Gonzales, N. A., Wheeler, L. A., & Millsap, R. E. (2010).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over time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5), 522.
- Gershoff, E. T., & Aber, J. L. (2006). Neighborhoods and schools: Contexts and consequences for the mental health and risk behaviors of children and youth. In L. Balter (Ed.), *Child psychology: A handbook of contemporary issues* (2nd. pp. 611-645).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Grolnick, W. S., Benjet, C., Kurowski, C. O., & Apostoleris, N. H. (1997).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538.
- Hohman, M. (2014). 동기면담과 사회복지실천. 이채원, 김윤희, 김은령, 임성철(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12)
- Hoover-Dempsey, K. V., Battiato, A. C., Walker, J. M., Reed, R. P., DeJong, J. M., & Jones, K. P. (2001). Parental involvement in homework. *Educational Psychologist*, 36(3), 195-209.
- Jackson, A. P., Choi, J. K., & Bentler, P. M. (2009). Parenting efficacy and the early school adjustment of poor and near-poor black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30, 1339-1355.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Pelletier, J., & Brent, J. M. (2002).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effects of parental self-efficacy, cultural diversity and teacher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34(1), 45-60.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Sheldon, S. B. (2002). Parents' social networks and beliefs as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301-316.
-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Simons-Morton, B. G., Crump, A. D., Haynie, D. L., & Saylor, K. E. (1999). Student-school bonding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Health Education Research*, 14(1), 99-107.
- Waanders, C., Mendez, J. L., & Downer, J. T. (2007). Parent characteristics, economic stress and neighborhood context as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in preschool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6), 619-636.
- 1 차원고접수 : 2016. 07. 08.
수정원고접수 : 2016. 11. 09.
최종게재결정 : 2016. 12. 05.

The Effect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Kim, Seri Lee, Suhyun Koo, Yejin Lee, Kangyi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parent's educational contribution, parent-school communication) on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We utilized data from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and children education as conducted by a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5. Participants were 1,500 parents (89.2% mothers) whose children atten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nationwide. Using the SPSS 20.0 package, descriptive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n we verified the hypothesized researc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AMOS 20.0. Parameters and path coefficients were estim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e direct effect of the parent's educational contribution and parent-school communications on parental efficacy and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oreover,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contributions and the level of parent-schoo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the adjustment to school by their childr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policymaking efforts which aim to encourage greater parental school involvement.

Keywords: parental school involvement, parent's educational contribution, parent-school communication, school adjustment, parental efficacy